

2. 공통 항목

- 2-1. 삶에 대한 만족감
- 2-2. 의료서비스 만족도
- 2-3. 일반인에 대한 신뢰
- 2-4.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 2-5. 공동체 의식
- 2-6.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2-7. 가구 월평균 소득
- 2-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2-10. 환경체감도

2 - 1. 삶에 대한 만족감

삶에 대한 군민의 전반적인 만족감 상승

· 군민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삶에 대체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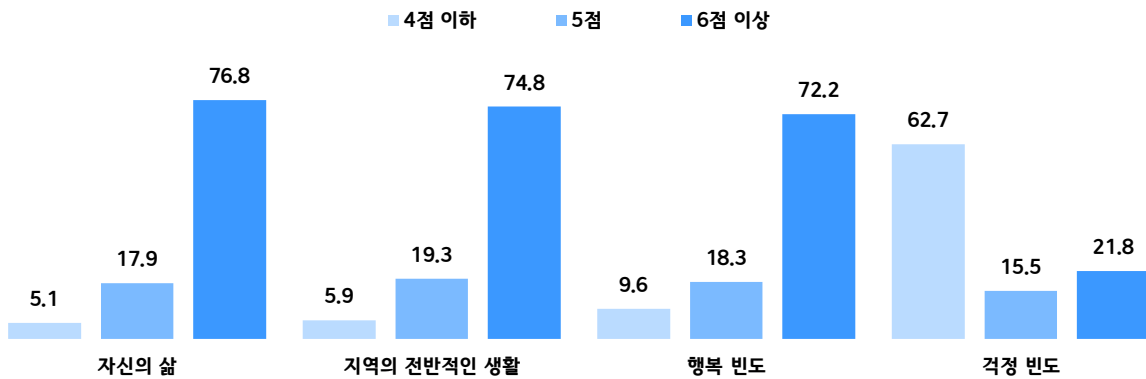
- 자신에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7.0점으로 2020년(6.3점) 대비 0.7점 증가함
- 자신의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6.8%로, 2020년(58.1%) 대비 18.7%p 증가함
-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9점으로 전년(6.3점) 대비 0.6점 증가함

· 전년 대비 행복 빈도는 증가, 걱정 빈도는 감소

- 행복 빈도와 걱정 빈도는 각각 평균 6.8점, 3.7점으로 행복 빈도는 전년(6.2점) 대비 증가, 걱정 빈도는 전년(4.3점) 대비 감소함
- 행복 빈도에 대해 '대체로 행복(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2.2%, 걱정 빈도에 대해 '대체로 걱정하지 않음(4점 이하)'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62.7%로 나타남

« 삶에 대한 만족감 »

(단위: %)



삶에 대한 만족감

(단위: 점, %)

구분	평균	계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 자신의 삶													
2022년	7.0	100.0	0.1	0.0	0.3	1.8	2.9	17.9	14.8	20.3	21.7	10.1	9.9
2020년	6.3	100.0	0.2	0.7	1.1	4.5	6.4	29.0	12.6	14.9	16.7	8.9	5.0
(2)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2022년	6.9	100.0	0.2	0.0	0.7	1.7	3.3	19.3	16.3	20.3	19.8	8.7	9.7
2020년	6.3	100.0	0.3	0.4	2.1	3.2	4.6	31.3	14.8	13.3	14.6	10.1	5.2
(3) 행복 빈도													
2022년	6.8	100.0	0.2	0.6	0.9	2.3	5.6	18.3	14.5	19.6	18.1	10.1	9.9
2020년	6.2	100.0	0.8	0.8	2.2	4.1	5.0	30.8	14.2	12.8	14.5	9.0	5.8
(4) 걱정 빈도													
2022년	3.7	100.0	6.3	13.7	18.9	13.9	9.9	15.5	7.6	7.1	4.6	1.3	1.2
2020년	4.3	100.0	6.4	7.9	10.9	12.6	9.4	27.6	7.6	7.2	4.4	3.4	2.6

2 - 2.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2020년 대비 「증가」

· 군민 10명 중 7명 의료서비스 이용한 적 있다

- 군민의 66.3%가 의료서비스에 '이용한 적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장성군민 의료서비스 '월평균 이용 횟수'는 2.0회로 나타남
- 남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59.2%, 여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73.8%로 여자의 이용률이 14.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한 의료기관은 '의원'이 6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병원' 22.0%, '한방 병·의원' 8.0% 순으로 나타남

· 장성군민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2020년 대비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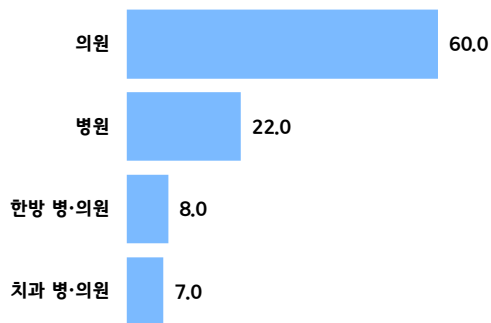
-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민은 56.7%로, 2020년(42.0%) 대비 14.7%p 증가함
-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민은 복부권이 6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의료 시설의 낙후·미비

- 의료서비스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8%로 나타남
-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가 25.8%로 가장 많고,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12.6%),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12.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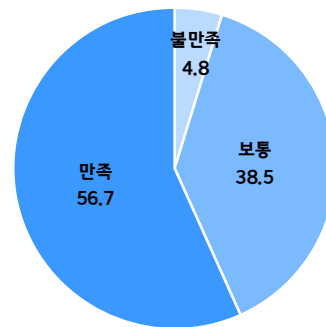
« 이용 의료 기관 »

(단위: %)



« 의료서비스 만족도 »

(단위: %)



의료서비스 만족도 - (1)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이용한 적 있다	월 평균 이용 횟수	이용한 의료기관									이용한 적 없다
				소계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소	약국 (한약국)	기타		
2022년	100.0	66.3	2.0	100.0	22.0	60.0	7.0	8.0	1.7	1.3	0.0	33.7	
2020년	100.0	63.7	2.4	100.0	25.1	59.8	4.8	6.0	1.2	2.4	0.7	36.3	
〈 성 별 〉													
남자	100.0	59.2	1.9	100.0	25.5	55.5	7.0	8.5	2.4	1.0	0.0	40.8	
여자	100.0	73.8	2.1	100.0	19.0	63.9	7.0	7.5	1.1	1.5	0.0	26.2	

의료서비스 만족도 - (2)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점)

구 분	계	만족도 평균	소계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2022년	100.0	3.7	100.0	4.8	1.1	3.7	38.5	56.7	36.5	20.2	
2020년	100.0	3.4	100.0	13.2	1.5	11.7	44.8	42.0	27.0	15.0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3.7	100.0	2.4	0.0	2.4	41.5	56.1	37.1	19.0	
북 부 권	100.0	4.0	100.0	2.6	1.1	1.5	28.9	68.5	34.8	33.7	
서 부 권	100.0	3.5	100.0	12.0	2.9	9.1	39.0	49.0	37.8	11.1	
광주인근권	100.0	3.8	100.0	1.8	1.4	0.5	38.6	59.5	33.7	25.9	
〈 성 별 〉											
남 자	100.0	3.6	100.0	4.7	0.9	3.8	41.8	53.5	36.7	16.8	
여 자	100.0	3.8	100.0	4.9	1.2	3.7	35.7	59.4	36.4	23.0	
〈 연 령 별 〉											
15 ~ 29세	100.0	3.7	100.0	3.2	0.0	3.2	41.1	55.7	35.6	20.1	
30 ~ 39세	100.0	3.2	100.0	16.3	2.5	13.8	51.2	32.5	31.0	1.5	
40 ~ 49세	100.0	3.4	100.0	3.7	0.6	3.2	59.2	37.0	28.9	8.1	
50 ~ 59세	100.0	3.5	100.0	6.0	2.9	3.2	44.9	49.0	37.0	12.0	
60세 이상	100.0	3.9	100.0	3.5	0.6	2.9	30.8	65.7	38.5	27.2	
65세 이상	100.0	3.9	100.0	3.6	0.6	3.0	29.7	66.7	39.2	27.5	

의료서비스 만족도 - (3) 불만족 이유

(단위: %)

구 분	계	불친절 하다	의료비가 비싸다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	진료가 불성실 하다	진료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	의료 시설이 낙후 되거나 미비하다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많이 한다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집에서 의료기관 까지 거리가 멀다	기 타
2022년	100.0	10.2	5.2	12.6	9.1	10.6	25.8	5.5	12.6	8.5	0.0
2020년	100.0	9.3	8.0	15.0	3.9	29.5	8.4	3.1	8.4	14.4	0.0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2.8	14.2	10.0	12.7	12.3	14.4	14.2	9.4	0.0	0.0
북 부 권	100.0	8.2	0.0	22.9	12.3	21.3	0.0	0.0	12.3	22.9	0.0
서 부 권	100.0	6.1	2.9	13.2	8.0	9.2	31.9	3.3	15.0	10.5	0.0
광주인근권	100.0	5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 성 별 〉											
남 자	100.0	16.1	4.3	6.4	12.8	5.7	28.6	4.3	13.7	8.1	0.0
여 자	100.0	5.1	5.9	17.9	5.9	14.8	23.3	6.5	11.7	9.0	0.0

2 - 3. 일반인에 대한 신뢰

군민 10명 중 4명 낯선 사람 '신뢰한다'

· 낯선 사람을 신뢰하는 비율은 2020년 대비 감소

- 낯선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7.1%로 2020년(49.0%) 대비 11.9%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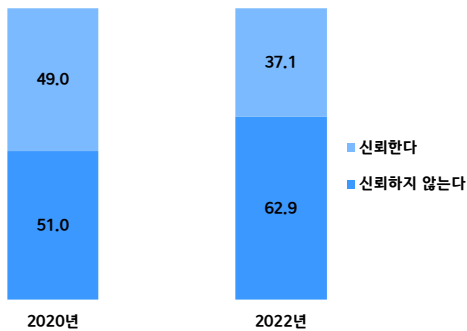
·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낯선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서부권에서 54.8%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인근권(12.7%)대비 42.1%p 높게 나타남

- 낯선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37.6%, 여자 36.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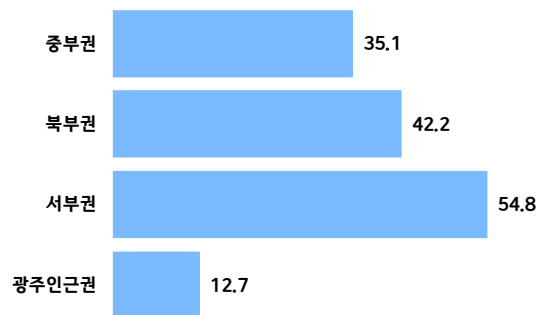
<< 일반인에 대한 신뢰 >>

(단위: %)



<< 지역별 일반인에 대한 신뢰 >>

(단위: %)



일반인에 대한 신뢰

(단위: %)

구 분	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2022년	100.0	62.9	11.6	51.2	37.1	35.1	2.1
2020년	100.0	51.0	7.2	43.8	49.0	45.5	3.5
< 지역 별 >							
충 부 권	100.0	64.9	12.1	52.8	35.1	33.3	1.8
북 부 권	100.0	57.8	15.4	42.4	42.2	40.6	1.6
서 부 권	100.0	45.2	7.7	37.5	54.8	50.4	4.4
광 주 인 근 권	100.0	87.3	12.6	74.7	12.7	12.7	0.0
< 성 별 >							
남 자	100.0	62.4	11.0	51.4	37.6	35.6	1.9
여 자	100.0	63.3	12.3	51.0	36.7	34.5	2.2

2 - 4.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군민 대부분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

· 장성 군민 대부분은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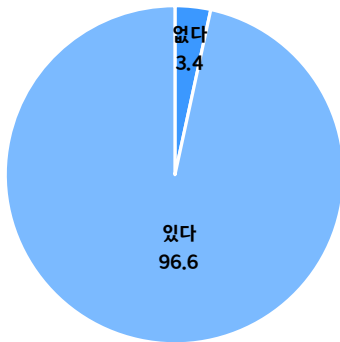
-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96.6%로 2020년(95.7%) 대비 0.9%p 증가함
-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4.1명으로 2020년(4.3명) 대비 0.2명 감소함

·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29세가 99.3%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연령별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5~29세가 4.8명으로 가장 많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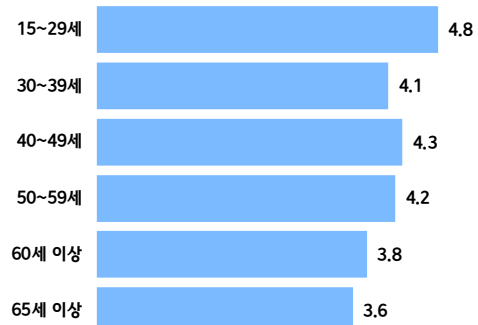
◀◀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

(단위: %)



◀◀ 연령별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

(단위: 명)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단위: %, 명)

구 분	계	있다	평균 인원	
			있다	없다
2022년	100.0	96.6	4.1	3.4
2020년	100.0	95.7	4.3	4.3
〈 성 별 〉				
남 자	100.0	96.6	4.3	3.4
여 자	100.0	96.6	3.9	3.4
〈 연 령 별 〉				
15~29세	100.0	99.3	4.8	0.7
30~39세	100.0	97.2	4.1	2.8
40~49세	100.0	96.0	4.3	4.0
50~59세	100.0	95.3	4.2	4.7
60세 이상	100.0	96.4	3.8	3.6
65세 이상	100.0	95.4	3.6	4.6

2 - 5. 공동체 의식

군민 10명 중 5명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 군민 10명 중 8명은 지역(동네) 사람들과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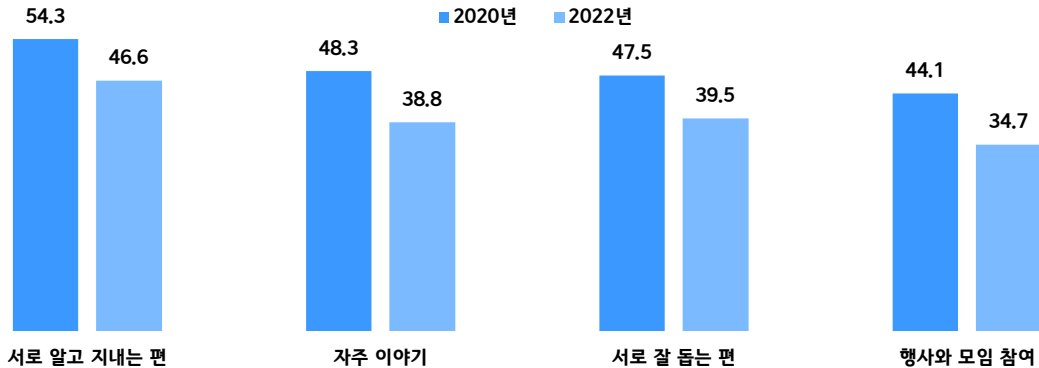
- 지역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낸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46.6%, '보통이다' 30.3%로 군민의 76.9%가 지역 사람들과 알고 지낸다고 응답함
- 지역 사람들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8.8%, '보통이다' 30.8%로 군민의 69.6%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응답함
-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9.5%, '보통이다' 34.5%로 군민의 74.0%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는다고 응답함
- 동네와 각종 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4.7%, '보통이다' 33.5%로 68.2%가 지역의 행사·모임에 참여한다고 응답함

· 공동체 의식은 연령·성별로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 지역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29세가 53.2%로 가장 높고, 모든 문항에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모든 문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소폭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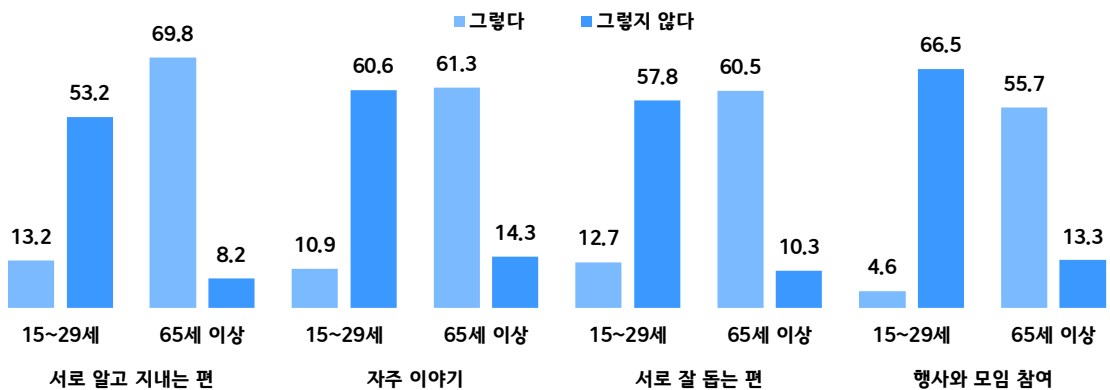
《 공동체 의식 》

(단위: %)



《 연령별 공동체 의식 》

(단위: %)



공동체 의식

(단위: %)

구 분	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2 0 2 2 년	100.0	23.1	8.5	14.6	30.3	46.6	32.3	14.3
2 0 2 0 년	100.0	20.3	7.4	12.9	25.5	54.3	34.0	20.2
< 성 별 >								
남 자	100.0	25.5	9.4	16.1	31.3	43.2	30.6	12.6
여 자	100.0	20.4	7.5	13.0	29.3	50.3	34.2	16.2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53.2	25.0	28.3	33.5	13.2	11.0	2.2
6 5 세 이상	100.0	8.2	1.3	6.9	21.9	69.8	43.6	26.2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2 0 2 2 년	100.0	30.3	10.0	20.4	30.8	38.8	26.0	12.8
2 0 2 0 년	100.0	26.3	10.0	16.3	25.4	48.3	30.6	17.6
< 성 별 >								
남 자	100.0	32.3	11.0	21.2	33.0	34.7	23.1	11.6
여 자	100.0	28.3	8.8	19.4	28.4	43.3	29.1	14.1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60.6	25.7	34.9	28.5	10.9	9.5	1.5
6 5 세 이상	100.0	14.3	1.6	12.7	24.4	61.3	38.0	23.3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2 0 2 2 년	100.0	26.0	8.8	17.2	34.5	39.5	25.9	13.6
2 0 2 0 년	100.0	22.4	8.8	13.6	30.1	47.5	30.0	17.5
< 성 별 >								
남 자	100.0	29.4	9.5	19.9	34.9	35.7	23.3	12.4
여 자	100.0	22.4	8.1	14.4	34.1	43.5	28.7	14.8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57.8	25.0	32.9	29.5	12.7	12.0	0.8
6 5 세 이상	100.0	10.3	1.8	8.5	29.2	60.5	35.2	25.3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0 2 2 년	100.0	31.7	12.2	19.5	33.5	34.7	22.1	12.6
2 0 2 0 년	100.0	28.7	12.2	16.5	27.2	44.1	26.6	17.5
< 성 별 >								
남 자	100.0	33.4	14.3	19.2	34.9	31.7	20.3	11.4
여 자	100.0	29.9	10.0	19.9	32.1	38.0	24.1	13.9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66.5	31.1	35.3	28.9	4.6	4.6	0.0
6 5 세 이상	100.0	13.3	2.6	10.7	31.0	55.7	32.5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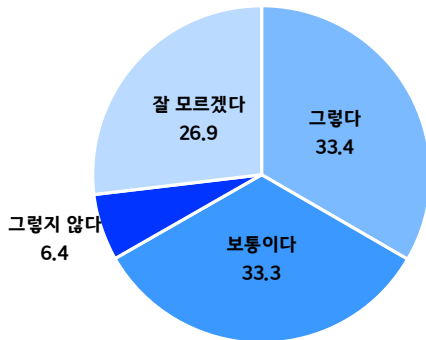
2 - 6.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군민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는 2020년 대비 「증가」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만족도는 2020년 대비 증가**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3.4%로 2020년(23.0%) 대비 10.4%p 증가함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만족도는 2020년 대비 증가**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된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34.9%로 2020년(28.0%) 대비 6.9%p 증가함
- **장성군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증가**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26.9%로 2020년(40.2%) 대비 13.3%p 감소함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25.1%로 2020년(38.9%) 대비 13.8%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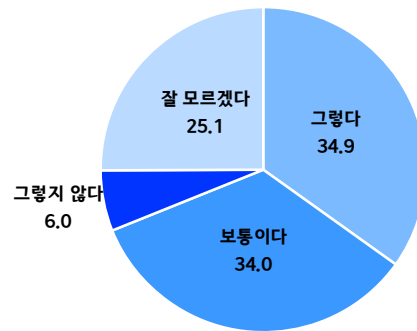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만족도 ▶▶

(단위: %)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만족도 ▶▶

(단위: %)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평균 만족도	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											
2022년	3.4	100.0	6.4	1.2	5.2	33.3	33.4	26.6	6.8	26.9	
2020년	4.4	100.0	6.0	0.9	5.1	30.7	23.0	18.1	4.9	40.2	
(2)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											
2022년	3.5	100.0	6.0	0.7	5.3	34.0	34.9	27.4	7.5	25.1	
2020년	4.5	100.0	4.4	0.3	4.1	28.7	28.0	19.9	8.1	38.9	

2 - 7. 가구 월평균 소득

군민 '가구 월평균 소득' 전년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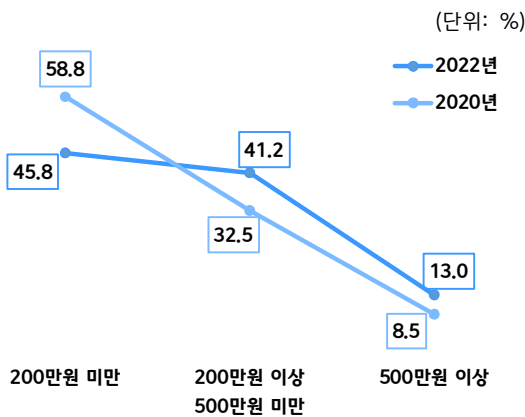
· 장성군 가구의 절반 이상은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

-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54.2%로, 2020년(41.0%) 대비 13.2%p 증가함
-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12.0%로 2020년(22.0%) 대비 감소했으며,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13.0%로 2020년(8.5%) 대비 4.5%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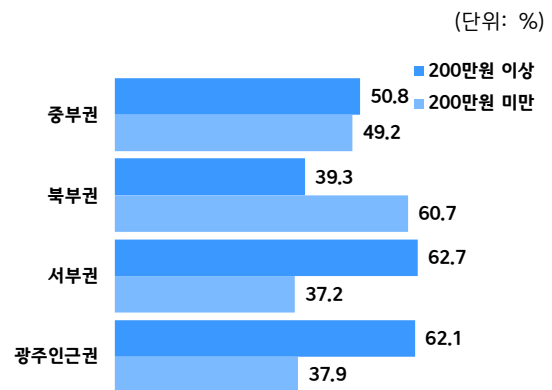
· 장성 군민의 월평균 소득은 성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지역별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서부권에서 62.7%로 가장 높고, 광주인근권 62.1%, 중부권 50.8%, 북부권 39.3% 순으로 나타남
-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남자 63.7%, 여자 29.1%로 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가구 월평균 소득 »



« 지역별 가구 월평균 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 6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700만원 ~ 800만원	800만원 이상
2022년	100.0	12.0	17.1	16.7	20.0	15.4	5.8	3.9	3.7	2.1	3.3
2020년	100.0	22.0	19.2	17.6	17.0	10.0	5.5	3.3	1.1	2.0	2.1
〈 지역 별 〉											
중부권	100.0	12.7	21.3	15.2	18.7	16.7	5.6	2.7	2.0	2.7	2.4
북부권	100.0	20.8	21.1	18.8	19.8	8.5	3.1	2.1	1.2	0.7	3.9
서부권	100.0	4.7	11.2	21.3	19.7	15.8	4.8	6.9	7.9	3.5	4.1
광주인근권	100.0	13.3	13.0	11.6	23.7	17.4	10.0	3.5	3.7	0.0	3.8
〈 성 별 〉											
남자	100.0	7.6	11.8	16.8	22.6	17.9	7.3	4.9	4.5	2.7	3.8
여자	100.0	23.5	31.2	16.3	13.1	8.7	1.9	1.3	1.7	0.4	2.0

2 - 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군민 10명 중 7명 「범죄피해 두려움지 않다」

· 군민 10명 중 7명은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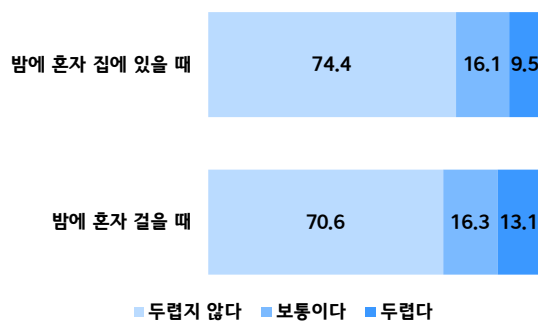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범죄피해에 대해 '두렵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9.5%이며 '두렵지 않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74.4%로 나타남
- 성별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남자 4.2%, 여자 15.1%로 여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군민 10명 중 7명은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음

-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범죄피해에 대해 '두렵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13.1%이며 '두렵지 않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70.6%로 나타남
- 성별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남자 5.6%, 여자 21.1%로 여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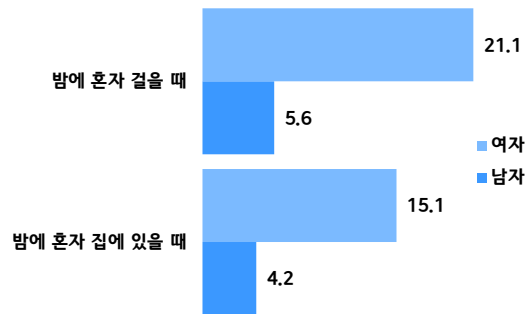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단위: %)



<<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단위: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단위: %)

구 분	계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두렵다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2022년	100.0	74.4	41.3	33.1	16.1	9.5	8.8	0.7	
2020년	100.0	73.7	44.1	29.6	14.7	11.6	9.8	1.8	
< 성 별 >									
남 자	100.0	82.9	51.7	31.3	12.8	4.2	4.0	0.2	
여 자	100.0	65.3	30.3	35.0	19.6	15.1	13.9	1.3	
(2) 밤에 혼자 지역(동네)의 골목길을 걸을 때									
2022년	100.0	70.6	39.7	30.9	16.3	13.1	11.3	1.7	
2020년	100.0	69.7	41.3	28.4	15.0	15.3	12.2	3.1	
< 성 별 >									
남 자	100.0	81.3	50.5	30.8	13.1	5.6	5.0	0.5	
여 자	100.0	59.2	28.2	31.0	19.7	21.1	18.0	3.1	

2 - 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안전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안하지 않다」

· 안전환경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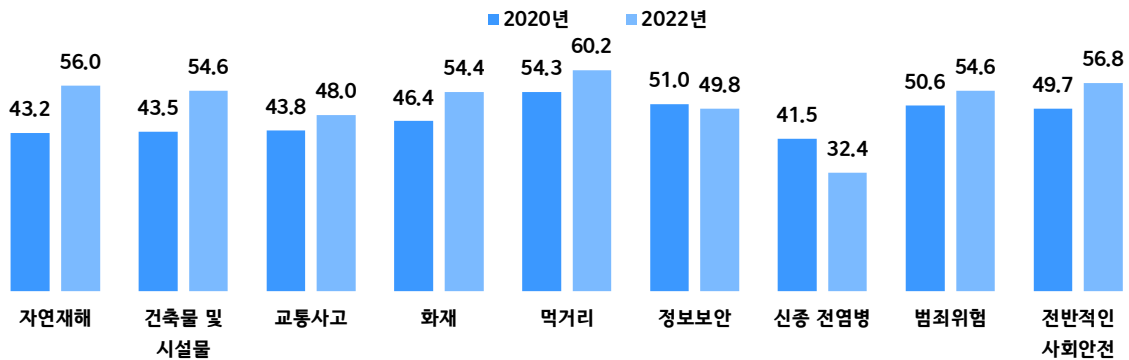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중 군민이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신종 전염병 영역이 3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교통사고 17.6%, 범죄위험 13.6% 순으로 나타남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중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영역은 먹거리(5.9%)로 나타남
- 신종 전염병에 대해 군민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2020년(34.6%) 대비 2.8%p 증가했지만, 신종 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군민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2020년 대비 감소함

· 안전환경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중 군민이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먹거리 영역이 6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종 전염병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신종 전염병 영역과 정보보안(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군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2020년 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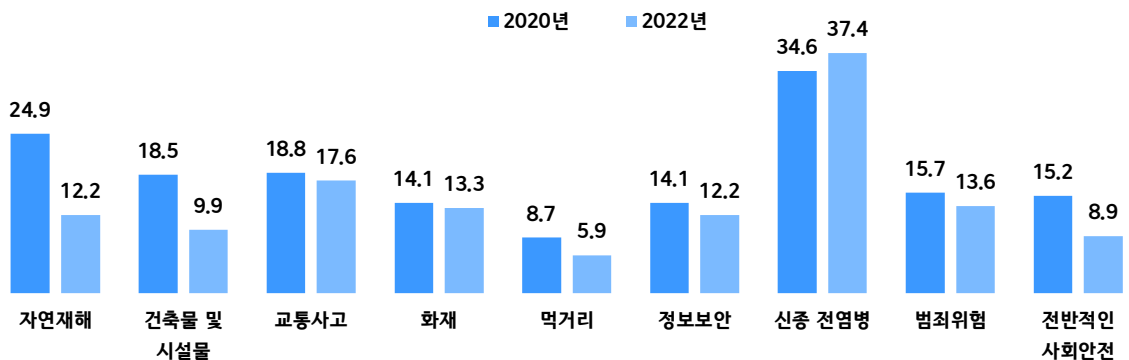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안전) >>

(단위: %)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불안) >>

(단위: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단위: %)

구 분	계	불안			보통	안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2 0 2 2 년	100.0	12.2	0.8	11.4	31.8	56.0	42.8	13.2
2 0 2 0 년	100.0	24.9	6.5	18.5	31.9	43.2	31.6	11.6
(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2 0 2 2 년	100.0	9.9	0.6	9.2	35.6	54.6	41.0	13.6
2 0 2 0 년	100.0	18.5	2.4	16.2	38.0	43.5	32.2	11.3
(3) 교통사고								
2 0 2 2 년	100.0	17.6	1.2	16.4	34.4	48.0	35.6	12.3
2 0 2 0 년	100.0	18.8	3.2	15.6	37.4	43.8	32.1	11.7
(4) 화재(산불포함)								
2 0 2 2 년	100.0	13.3	0.7	12.6	32.3	54.4	41.6	12.8
2 0 2 0 년	100.0	14.1	2.2	11.9	39.5	46.4	34.8	11.6
(5)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2 0 2 2 년	100.0	5.9	0.1	5.8	34.0	60.2	44.5	15.7
2 0 2 0 년	100.0	8.7	1.4	7.3	37.1	54.3	41.3	13.0
(6) 정보보안(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2 0 2 2 년	100.0	12.2	1.0	11.3	37.9	49.8	36.4	13.4
2 0 2 0 년	100.0	14.1	2.7	11.3	34.9	51.0	38.0	13.0
(7)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2 0 2 2 년	100.0	37.4	15.1	22.3	30.2	32.4	27.6	4.9
2 0 2 0 년	100.0	34.6	18.0	16.6	23.9	41.5	32.8	8.7
(8) 범죄위험								
2 0 2 2 년	100.0	13.6	1.7	11.9	31.8	54.6	41.4	13.1
2 0 2 0 년	100.0	15.7	3.6	12.2	33.7	50.6	39.6	11.0
(9) 전반적인 사회 안전								
2 0 2 2 년	100.0	8.9	0.4	8.5	34.3	56.8	42.0	14.9
2 0 2 0 년	100.0	15.2	3.3	12.0	35.0	49.7	39.4	10.4

2 - 10. 환경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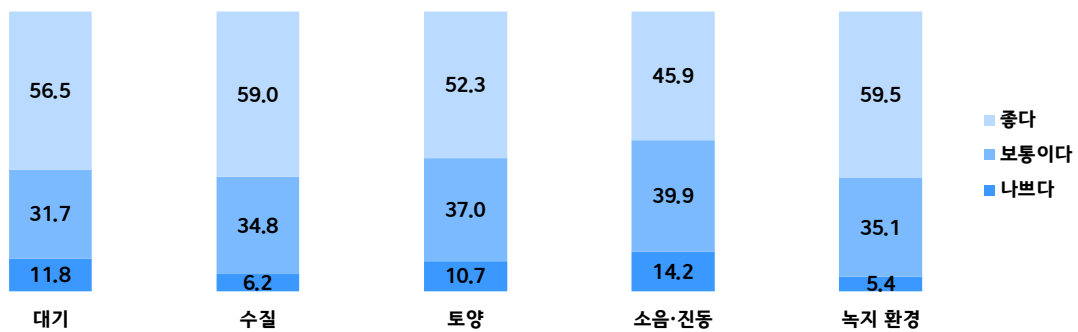
장성 군민이 가장 긍정적으로 느끼는 지역 환경은 「녹지 환경」

· 군민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역 생활환경은 녹지 환경

- 환경 체감도에 '좋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녹지 환경이 59.5%로 가장 높고, 수질 59.0%, 대기 56.5% 순으로 나타남
- 소음·진동에 대해 '좋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5.9%로 2020년(55.0%) 대비 9.1%p 감소함

« 환경 체감도 »

(단위: %)



환경 체감도

(단위: %)

구분	계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좋다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1) 대기(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2022년	100.0	11.8	1.8	10.0	31.7	56.5	38.9	17.6	
2020년	100.0	13.0	2.0	11.0	31.7	55.3	25.9	29.5	
(2) 수질(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2022년	100.0	6.2	0.5	5.8	34.8	59.0	39.2	19.8	
2020년	100.0	9.2	1.4	7.9	33.1	57.7	28.3	29.4	
(3)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2022년	100.0	10.7	0.9	9.9	37.0	52.3	34.3	18.0	
2020년	100.0	10.1	1.3	8.8	35.0	54.9	26.6	28.3	
(4) 소음·진동(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2022년	100.0	14.2	1.4	12.8	39.9	45.9	28.6	17.2	
2020년	100.0	15.8	3.7	12.0	29.3	55.0	23.4	31.5	
(5) 녹지 환경(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									
2022년	100.0	5.4	0.9	4.5	35.1	59.5	36.1	23.4	
2020년	100.0	7.1	0.6	6.5	32.2	60.7	28.1	32.6	